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6.11.17.(화) 배포 즉시	사진	o	자료	x	매수	2

담당부서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내수면연구팀)	과 장	김성곤 (031-8008-6500)
		팀 장	임성률 (031-8008-8176)
		담당자	안태영 (031-8008-6529)

경기도, 파주 문산천서 멸종위기야생생물 '흰수마자' 서식 확인

○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한탄강·임진강 수계 4개 하천 대상 생태조사 실시
○ 문산천 일대서 한반도 고유 멸종위기 Ⅰ급 '흰수마자' 서식 재확인
○ 하천 생태 건강성 회복으로 전 하천서 출현 어종 증가

경기도는 파주시 문산천에서 멸종위기야생생물 Ⅰ급이자 한반도 고유종인 '흰수마자'의 서식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올해 4월과 9~10월 두 차례에 걸쳐 영평천, 차탄천, 문산천, 공릉천 등 경기 북부 한탄강 및 임진강 수계 주요 하천 4개소를 대상으로 민물고기 서식 관련 생태환경 조사를 실시했다.

상반기 조사에는 문산천 조사 지점 인근 교량 공사로 하천 바닥에 펄이 두껍게 퇴적되어 흰수마자를 발견하지 못했으나, 하반기 조사에서는 자연 유속으로 펄이 씻겨 나가고 깨끗한 모래 여울이 다시 형성되면서 서식 중인 개체가 확인됐다.

흰수마자는 잉어과 모래무지아과 꾸구리속에 속하는 한반도 고유종으로, 모래가 깔리고 물 흐름이 있는 얕은 여울에만 서식하는 생태적 특성이 있다. 임진강·한강·금강·낙동강 일부 수역에만 제한적으로 분포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 Ⅰ급이다.

경기도 수계에서는 2004년 이후 공식적인 발견 기록이 없었으나, 2024년

민관 생물다양성 탐사에서 관찰된 데 이어 이번 정기 생태조사를 통해 다시 서식이 확인됐다.

이 밖에도 하천 4곳에서 총 49종의 민물고기가 확인됐다. 하천별로 영평천 25종, 차탄천 27종, 문산천 29종, 공릉천 25종이 출현해 2016년 및 2021년 대비 적게는 4종에서 많게는 9종까지 종 다양성이 모두 증가했다. 이 가운데 차탄천에서는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인 '묵납자루'의 서식도 함께 확인됐다.

김성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문산천의 흰수마자 서식 확인과 출현 어종 증가는 도내 주요 하천의 수생태 건강성이 점차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앞으로도 도내 하천의 모니터링을 통해 생물다양성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겠다"고 말했다.